

목 차

■ 하반기 국내 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 기업 경영 여건 변화와 대응 과제	
Executive Summary	1
I. 상반기 국내외 경제 특징과 하반기 전망	2
II. 주요 국내외 경제 현안	11
III. 기업 대응 전략	17
■ HRI 경제 지표	19

하반기 국내 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 기업 경영 여건 변화와 대응 과제

■ 상반기 국내외 경제 특징과 하반기 전망

- 최근 세계 경제의 특징 : 세계 경제는 고유가 지속 등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져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둔화될 조짐을 보임
- 상반기 국내 경제 개관 : 세계 경제의 불안한 성장세 속에서 국내 경제도 2006년 1/4 분기를 정점으로 점차 둔화되는 양상을 나타냄
- 최근 국내 경제의 문제점 : 국내 경제는 대외 리스크 요인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내 실질 소득 감소와 물가 상승 압력 증대, 고용 시장 개선 미흡, 정책 혼신, 경제 심리 악화와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향후 회복세가 미약해질 것으로 예상됨
- 하반기 국내 경제 전망 : 2006년 상반기 5%대, 하반기 4%대 성장의 상고하자, 연평균 4.5%

■ 주요 국내외 경제 현안

- 글로벌 인플레이의 영향 : 세계 경제는 유동성 과잉과 원자재가 상승으로 인플레이 압력이 증대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금리 인상 도미노 현상이 나타나 경기 둔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한미 FTA의 향방 : 이번 7월에 2차 본협상에 들어가는 한미 FTA는 완전 타결까지는 많은 난항이 예상되나, 한미 FTA가 성사될 경우 국내 경제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주식 시장 혼조세 : 최근 글로벌 유동성 축소의 영향으로 주가 급락 현상이 나타났으며, 하반기에 경기 회복세가 미약할 경우 조정 국면의 장기화가 우려됨
- 국내 M&A 시장 과열 : 대규모 시장 규모를 형성하고 있는 국내 M&A 시장이 과열 양상을 나타내고 있어 국내 투자 부진, 기업 부실화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스포슈머(Sportsumer)의 부상 : 연중 내내 대규모 국제 스포츠 행사가 집중되어 있는 올해에 스포슈머에 대한 스포츠 마케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기업 대응 전략

- 단기 대응 방안 : 단기적으로 기업은 경제 연건 악화에 대비하여, 금융 리스크 축소, 자금 운용 신중, 마케팅 강화, 생산성 향상 등에 주력해야 함
- 중장기 대응 방향 : 중장기적으로 한미 FTA 발효 등 시장 개방 확대에 대응한 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강구

하반기 국내 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 기업 경영 여건 변화와 대응 과제

1. 상반기 국내외 경제 특징과 하반기 전망

- 세계 경기가 고유가로 인한 인플레이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경기도 둔화 양상을 나타냄. 향후 국내 경제는 대외 리스크 요인 확산, 국내 실질 소득 감소와 물가 상승 압력 증대, 고용 불안, 정부 정책 혼선, 경제 심리 악화 등으로 경기 회복세가 크게 약화될 전망이다

1. 최근 세계 경제의 특징

- 우선 세계 경제는 고유가 지속 등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져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둔화될 조짐을 나타내고 있음

- 미국 : 물가 급등 속 소비 부진

-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월 전년 동기 대비 3.5%에서 5월에 4.2%로 급등
- 소매판매 증가율은 4월 전기 대비 0.8%에서 5월에 0.1%로 크게 둔화

- 중국 : 과잉 투자 해소를 위한 통화 긴축 단행

- 과잉 투자 축소, 물가 안정 등을 위해 기준율을 7.5%에서 8%로 0.5%p 인상
- 고정자산투자증가율 1/4분기 29.8% 4월 29.6%에서 5월 30.3%로 지속 확대

- 일본 및 EU : 미약한 경기 회복세 유지

- 일본 : 소비 회복, 수출 증가세 지속 등으로 광공업생산 증가율이 3월 전년 동월 대비 3.1%에서 4월에 3.6%로 상승
- EU : 주택 경기 호황, 고용 시장 소폭 개선 등으로 소매 판매액이 3월 전기 대비 0.7% 감소에서 4월 1.4%의 증가세로 반전

2. 상반기 국내 경제 개관

○ 세계 경제의 불안한 성장세 속에서 국내 경제도 2006년 1/4분기를 정점으로 점차 둔화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

- 내수 회복 부진 : 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 등 내수 부문의 증가세 하락
 - 소비재 판매 증가율은 작년 4/4분기 6.8%를 정점으로 올해 5%대로 하락
 - 설비투자는 작년 4/4분기 7.0%에서 올해 1/4분기 4.3%, 4~5월 4.6%로 증가세 둔화
 - 건설투자(건설既成 기준) 증가율은 1/4분기 5.8%에서 4~5월 1.5%로 하락
 - 산업생산 증가율은 1/4분기 12.0%에서 4~5월에 10.6%로 둔화
- 경상수지 적자화 : 수출의 꾸준한 증가에도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로 올해 1~5월 경상수지는 15억 달러 적자
- 금융 시장 불안 : 주가, 금리, 환율 등 금융 시장 변동성 급증
 - 종합주가지수는 1/4분기말 1,359.60p에서 6월 29일 현재 1,263.02p로 하락
 - 국고채 금리는 1/4분기말 4.93%에서 6월 29일 현재 5.01%로 상승
 - 원화 환율은 1/4분기말 971.7원에서 6월 29일 현재 960.60원으로 하락
- 경기지수 하락 : 경기동행지수 및 선행지수의 동반 하락 진행중
 - 그 결과 현재 경기를 나타내 주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3~6개월후 경기를 전망해주는 선행지수 전년동월비 증가율이 2006년 1월 이후 지속 하락

< 경기종합지수 추이 >

	2005				2006	
	1/4	2/4	3/4	4/4	1/4	5월
경기동행지수	99.0	99.1	99.7	100.1	100.5	99.8
경기선행지수	2.9	3.3	5.1	6.8	6.6	5.4

자료 : 통계청.
주 : 기말 기준.

3. 최근 국내 경제의 문제점

○ 국내 경제는 대외 리스크 요인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내 실질 소득 감소와 물가 상승 압력 증대, 고용 시장 개선 미흡, 정책 혼선, 경제 심리 악화와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향후 회복세가 미약해질 것으로 예상됨

○ 대외 리스크 요인 확산

- 고유가 심화 : 중국 등 신흥공업국의 수요 확대, 이란 핵문제 등으로, 두바이 유가는 2005년말 배럴당 53.2달러에서 6월 29일 현재 66.5달러로 급등
- 세계 금리 인상 추세 유지 : 인플레이 압력 해소를 위해 하반기에도 미국의 1~2차례 추가 금리 인상 예상, 그 결과 EU와 개도국들의 금리 상승세도 지속될 전망이다
- 글로벌 달러 유지 : 美 경상수지 적자가 올해 1/4분기 2,087억 달러를 기록하여, 1/4분기 GDP의 약 6.4%에 달하고 있어 하반기에도 달러 약세가 불가피
- 세계 경제 둔화 : 고유가, 금리 인상 등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경기 둔화 전망
- 한반도 정세 불안 : 대포동 미사일 위기 등으로 北美 갈등 심화, 南北 관계 악화 예상

< 參考 > 세계 경제에 대한 낙관론과 비관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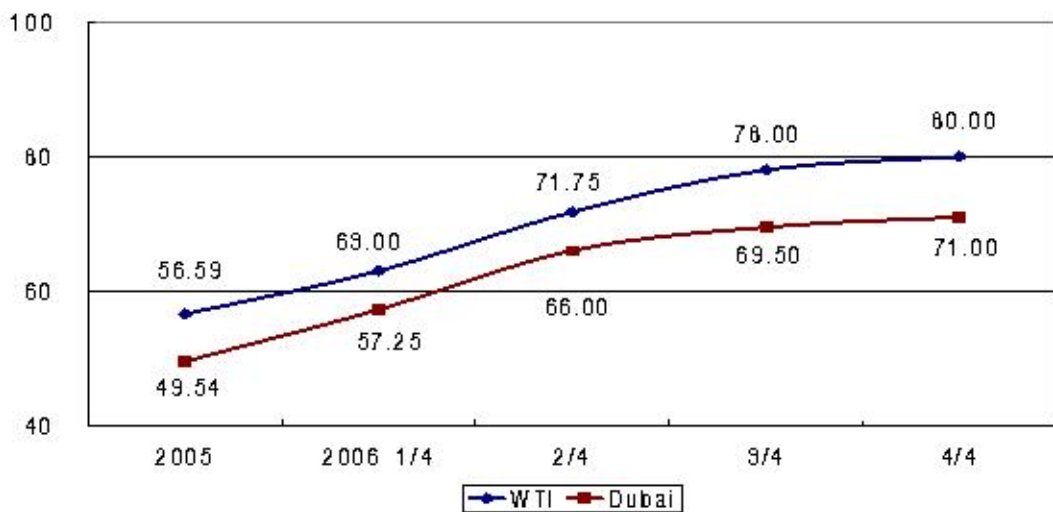
- 낙관론과 비관론의 공통점 : 올해 중 미국 경제의 경기 하강 불가피
- (낙관론 : IMF 로드리고 라토 총재) 고유가 위험, 미국 경제의 경기 하강 가능성이 높으나, 일본과 유로존의 성장세가 강하여 세계 경제의 확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비관론 : 모건스탠리 앤디 시에) 글로벌 부동산 경기의 동반 하강으로 2007년까지 세계 경제성장률이 3%에 머물 수 있음. 부동산 시장의 향방이 세계 경기의 운명을 좌우할 것으로 판단

<参考> 국제 유가 및 원화 환율 전망

- 유가 상승 : 중국, 인도 등 신흥공업국 수요 급증, 산유국 정세 불안, 헤지펀드의 가수요 등으로 CERA는 올해 두바이 유가가 배럴당 70달러 이상으로 상승할 수 있음을 전망함

< 국제 유가 추이 및 전망 >

(기간중 평균: 달러/배럴)



자료 : CERA (美 캠브리지에너지연구소, Cambridge Energy Research Associates).

- 환율 하락 : 美 경상수지 적자 확대, 일본 및 EU 경기 회복 등으로 글로벌 달러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원화 환율은 올해 평균 940원대가 예상

< 엔/달러 및 원/달러 환율 전망 >

(기말 기준: 엔, 원)

	2006			2007	
	2/4	3/4	4/4	1/4	2/4
엔/달러	116.2	108.6	105.0	103.1	101.4
원/달러	959.5	944.8	913.5	897.0	882.2

자료 : 국제금융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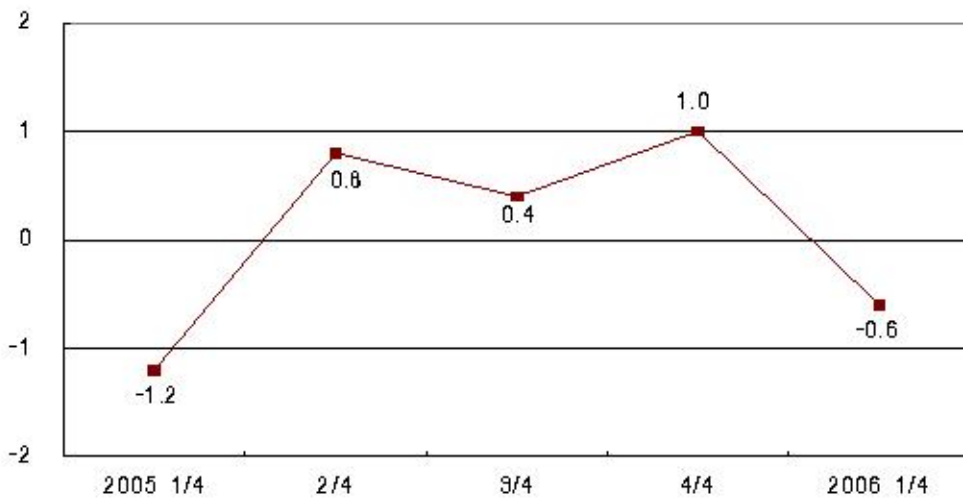
주 : 엔/달러 환율은 15개 투자은행 평균 전망치, 원/달러 환율은 원/엔 8.7:1의 비율을 적용.

○ 국내 실질 소득 감소와 물가 상승 압력 증대

- 국내 실질 소득 감소 : 국내 소비 여력을 결정하는 실질국민총소득(GNI)은 1/4 분기에 전기 대비 0.6% 감소

< 실질 GNI 증가율 추이 >

(전기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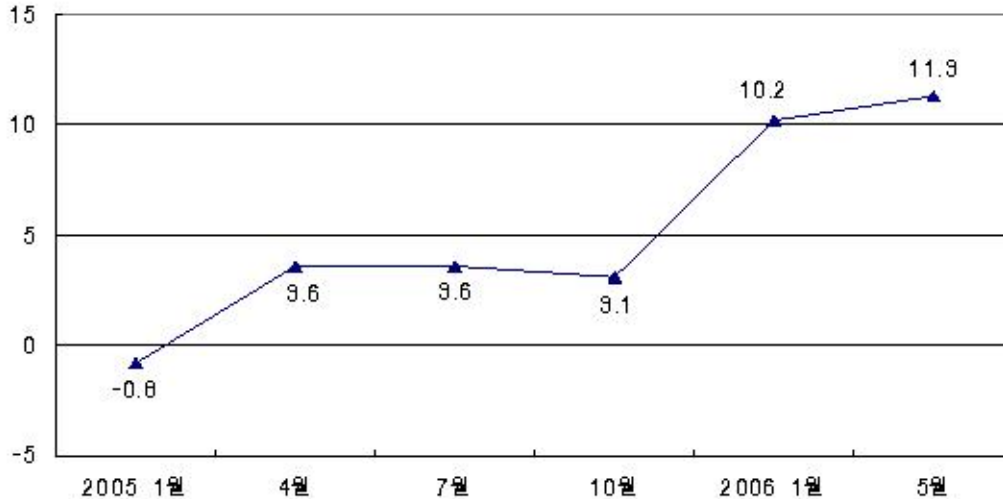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 물가 상승 압력 증대 : 소비자 물가는 약 2%대 초반의 안정된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나, 국내 물가에 약 1~2분기 선행하는 수입물가 상승률은 4월 6.1%에 이어 5월에 11.3%로 급등
 - 수입물가 추이 : -0.8% (2005년 1월) → 3.1% (10월) → 10.2% (2006년 1월) → 11.3% (5월)
 - 수입 물가 급등 원인 : 작년 4/4분기 이후 수입 자본재나 소비재 가격은 안정되어 있으나, 수입물가 전체 가중치의 약 31.8%를 차지하고 있는 원유, 비철 금속 등 기초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였기 때문임
 - 기초원자재 가격 증가율 : 18.8% (2005년 10월) → 33.8% (2006년 1월) → 31.9% (5월)

< 수입물가 상승률 추이 >

(전년동기대비, %)



자료 : 한국은행.

< 최근 소비자 물가 안정의 원인 >

- 소비자 물가 안정 :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대 초반으로 안정된 모습을 나타냄
 - 소비자물가상승률 : 3.2% (2005년) → 2.3% (2006년 1/4분기) → 2.2% (4~5월 평균)
- 소비자 물가 안정의 원인 :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르는 수입 물가 급등분이 국내 물가에 반영되는 시차(약 1~2분기) 효과, 농산물 가격 안정, 국내 경기 둔화에 따르는 수요측 물가 상승 압력 미약 등

< 한은의 물가 안정 목표 변경에 대한 논의 >

- 물가 안정 목표제 (Inflation Targeting) : 중앙은행이 사전에 인플레이션 목표를 정해 놓고, 정책 금리 조정 등을 통해 이를 달성하는 통화정책 운용 방식
 - 우리나라는 1997년말 한국은행법이 개정된 뒤 1998년부터 물가안정목표제도를 운영
 - 인플레이션 목표 지표: 1998~99년 소비자물가, 2000년 이후 근원인플레이션을
- 근원 인플레이션을 (Core Inflation) : 소비자물가에서 기상 변화, 국제 유가 변동 등 공급 충격에 의해 가격이 단기간에 급변동하는 '곡물 이외의 농산물 및 석유류' 품목을 빼고 산출되는 물가 상승률임
- 최근 한은의 물가 안정 목표 변경안 : 체감 경기를 반영하기 위해 소비자물가로 인플레이션 목표 지표를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표명
 - 재경부 안 : 현행 제도 (근원 인플레이션 기준)를 유지하되, 2.5~3.5%의 물가 안정 목표를 다소 낮추는 방안을 제안

○ 고용 불안 지속

- 외형상 실업률 안정 : 전체 실업률은 1/4분기 3.9%에서 4월과 5월에 각각 3.5% 및 3.2%로 안정
- 비정규직 문제 상존 : 그러나 5월 현재 비정규직 (일용+임시) 근로자가 754.7만 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 1,573만 명의 48.0%에 달함
- 청년실업 문제 지속 : 또한 15~29세 청년 실업자 수도 33만 명으로 전체 실업자 78.3만 명의 42.1%를 차지함
- 좋은 일자리 부족 : 실업률 안정의 원인 중 한 가지는 좋은 일자리 부족으로 구직 활동을 포기하는 구직단념자가 증가 추세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됨
 - 구직 단념자 추이 (月평균, 만 명) : 6.9 (2002년) → 9.0 (2003년) → 10.0 (2004년) → 12.5 (2005년) → 12.0 (2006년 1~5월)

< 실업률의 지표의 기준 >

- 실업자 기준 : 15세 이상 인구 중 매월 조사 주간인 1주일 동안 ① 1주일간 전혀 일을 하지 못하고, ② 항상 취업이 가능하며, ③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 실업자로 간주
- 적극적 구직 활동의 기준 : 직업소개소에 등록, 취직원서 제출, 사업체 방문, 신문광고에 응시, 친지에게 취업의뢰 등

< 실업률의 지표의 문제점 >

- 1개월중 단 1주일만 일을 한 근로자, 아르바이트와 같은 임시직도 취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고용 불안정성 정도가 실업률에는 반영될 수 없음
- 특히 고용 시장의 불황이 극심할 경우 구직 활동의 장기화로 취업 활동을 포기하는 구직 단념자가 급증하게 되는 데, 구직 단념자는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 구직단념자의 의미 : 非경제활동인구 중 취업 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노동 시장적사유로 일거리를 구하지 않은 자 중 지난 1년 내 구직 경험이 있었던 사람

○ 정부 정책 혼선

- 정부·여당 간 경제 정책 결정과 추진에 혼선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민간 경제 주체들의 불안 심리를 증폭시킴

< 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 혼선 사례 >

통화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경부는 경기 회복을 위해 정책금리 인상 반대 · 한은은 물가 안정을 위해 선제적 인상 지속
부동산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당은 민생 경제를 위해 부동산 세제 정책 등의 완화 요구 · 청와대는 정책의 일관성을 주장하며 이를 반대
복지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혁파는 분배 우선을 내세워 계획된 복지정책을 추진 · 실용파는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해 성장 우선 정책으로 전화 요구

자료 : 각 언론사 보도 참고

○ 경제 심리 악화

- 체감 경기 악화, 정책 혼선 등으로 향후 경제 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보는 가계와 기업의 민간 주체들이 많아져, BSI와 CSI가 일제히 기준치 100을 하회
 - 소비 심리 악화 : CSI(소비자기대지수, 통계청)가 5월 이후 기준치인 100을 하회함에 따라, 향후 경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가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투자 심리 악화 : BSI(기업실사지수, 전경련)도 6월 이후 기준치인 100을 하회함

< 소비자자기대지수 (CSI) 및 기업경기실사지수 (BSI) 추이 >

	2006.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CSI (통계청)	104.5	103.8	103.4	100.6	98.0	97.4	-
BSI (전경련)	102.6	102.4	118.9	112.7	110.7	98.6	94.2

자료 : 통계청, 전국경제인연합회.

주 : 기말 기준.

4. 하반기 국내 경제 전망

○ (내외수 동반 부진으로 성장세 둔화) 하반기 한국 경제는 국내외 문제점들로 인해 상반기에 비해 내수 부진, 수출 경기 둔화세가 심화될 것으로 보여, 경제성장률이 4% 내외로 낮아질 것이 예상됨

- 2006년 민간소비 4.0%, 설비투자 5.5%, 건설투자 1.5% 내외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수출 둔화, 수입 증가로 경상수지 흑자는 2005년 166억 달러에서 50억 달러로 크게 축소
- 경제성장률은 상반기 5%대에서 하반기 4% 내외로 하락하여, 연간 4.5% 예상

< 2006년 경제 전망 >

		2004	2005	2006 (E)
국제 지표 (IMF)	세계 경제성장률 (%)	5.3	4.8	4.9
	미국 (중국)	4.2(10.1)	3.5(9.9)	3.4(9.5)
	일본 (EU)	2.3(2.1)	2.7(1.3)	2.8(2.0)
국민 계정	경제성장률(%)	4.7	4.0	4.5
	민간소비 (%)	-0.3	3.2	4.0
	설비투자 (%)	3.8	5.1	5.5
대외 거래	경상수지(억 달러)	276	166	50
	원/달러 환율(평균, 원)	1,145	1,024	940

주 : 국제 지표 실적 및 전망치는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06. 4.) 기준.

II. 주요 국내외 경제 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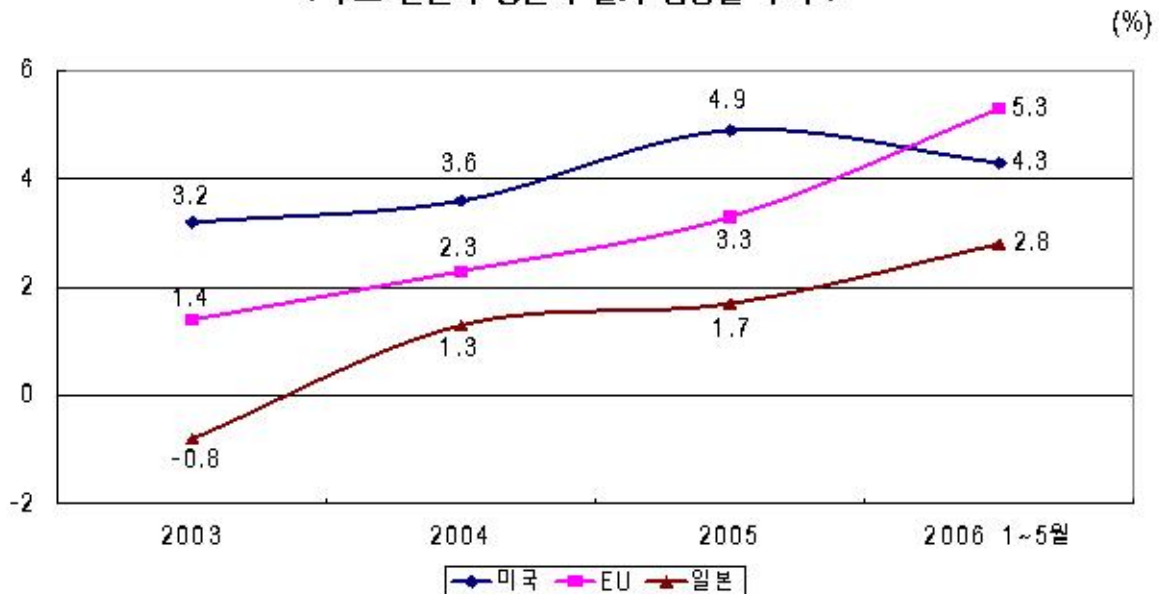
- 향후 기업 경영 전략 수립에 영향을 미칠 주요 현안으로는 글로벌 인플레이 현상과 세계 경제 둔화 가능성, 한미 FTA 협상 추이, 국내 증시의 향방, 국내 M&A 시장 가열, 월드컵 등에 의한 스포츠 연계 마케팅 전략 등을 들 수 있음

1. 글로벌 인플레이의 영향

- 세계 경제는 유동성 과잉과 원자재가 상승으로 인플레이 압력이 증대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금리 인상 도미노 현상이 나타나 경기 둔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선진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인플레이 압력 증대 : 미국, 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의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높은 수준을 지속함

< 주요 선진국 생산자 물가 상승률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주 : EU 는 2006년 1~4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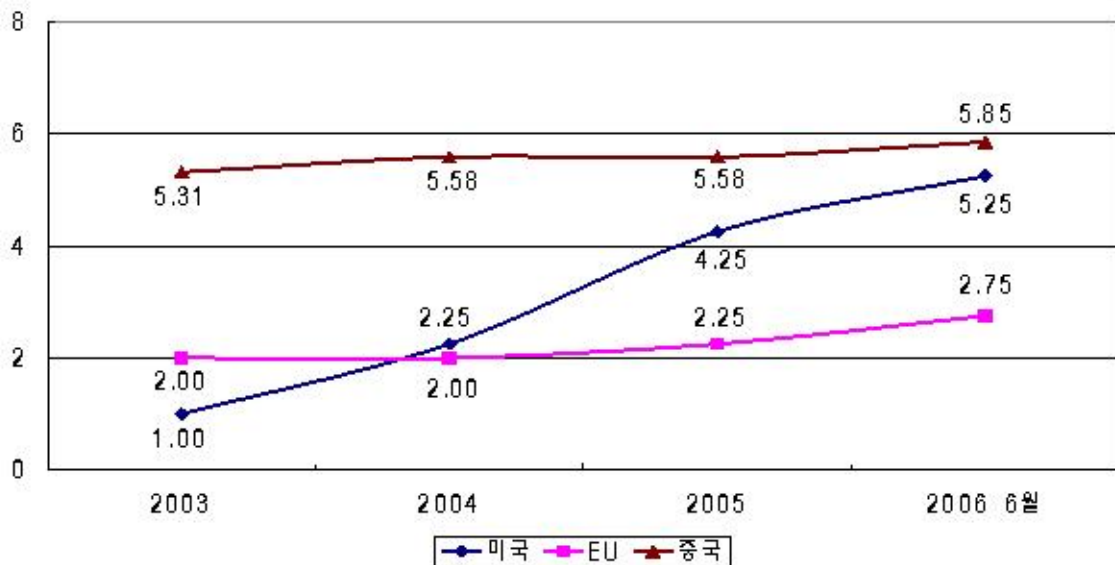
하반기 국내 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 정책 금리 인상 : 인플레이 압력 해소를 위해 미국, EU, 중국 중 주요국들이 일제히 정책금리 인상을 추진중임
 - 미국 : 美 연방기금금리는 '04년 6월 이후 17번 연속 인상, 1%에서 現 5.25%로 4.25%p 인상
 - 유로지역 : 기준금리도 작년 12월 이후 3차례에 걸쳐 2.0%에서 2.75%로 인상
 - 중국 : 올해 4월에 약 2년 이상 고정되었던 1년 만기대출 금리를 5.58%에서 5.85%로 인상

- 인플레이 및 금리 인상으로 세계 경제 둔화 예상 : 글로벌 인플레이 압력과 금리 상승에 따르는 선진국들의 소비 및 투자 부진 예상
 -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같이 대외의존도가 높은 개도국들의 對선진국 수출이 타격을 입을 전망
 - 또한 대내외 금리 격차 해소를 위한 국내 금리 상승도 불가피하여 내수 위축 심화 초래
 - 한편 세계적인 캐리 자금이 신흥 개도국에서 이탈하여 국내 증시 불안 우려 증대

< 주요국 정책 금리 추이 >

(%)



자료 : 한국은행.

2. 한미 FTA의 향방

○ 이번 7월에 2차 본협상에 들어가는 한미 FTA는 완전 타결까지에는 많은 난항이 예상되나, 한미 FTA가 성사될 경우 국내 경제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한미 FTA(Free Trade Agreement)의 의미 : 한미 FTA란 WTO를 통한 다자간 시장 개방 협상 체제가 완성되기 전 중간 단계로서 한국과 미국간 상품과 서비스의 무역 장벽을 제거하는 양자간 특혜 무역 협정을 의미
- 향후 추진 일정 : 2007년 3월까지 본협상 완료 → 4~6월 의회 검토(美 의회가 행정부에 부여한 TPA 6월말 완료) → 하반기 의회 비준 → 2008년 FTA 발효 가능

< 신속협상권한(TPA : Trade Promotion Authority) >

- 美 의회가 행정부에 부여하는 통상 협상 권한으로, 이 경우 의회는 행정부가 체결한 통상 협정에 대해서 내용 수정은 할 수 없고 단지 승인 여부만 결정할 수 있음.

- 한미 FTA의 기대 효과 : 미국 시장 점유율 상승, 대외신인도 향상 등의 긍정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나, 국내 경쟁력 취약 분야의 피해도 예상됨
 - 긍정적 효과 : 직접적으로는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시장 확보, 한미간 통상 마찰 완화 등으로 對美 수출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 간접적으로는 미국 시장과의 통합내지는 연계 강화로 대외 신인도 향상 및 외국인 투자 확대를 기대할 수 있으며, 서비스업 등 국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촉진시킬 수 있음
 - 부정적 효과 : 그러나 국제 경쟁력이 절대적으로 취약한 농산물 시장, 금융, 교육, 의료 등의 서비스 시장 잠식이 우려됨

3. 주식 시장 혼조세

○ 글로벌 유동성 축소의 영향으로 주가 급락 현상이 나타났으며, 하반기에 경제 펀더멘틀 회복세가 미약할 경우 조정 국면이 장기화될 우려가 존재함

- 주가 급락 후 조정 국면에 진입 : 종합주가지수는 올해 5월 11일 1,464.70p에서 6월 14일 1,192.09p까지 한 달여 만에 약 270p가 급락한 이후, 현재 1,200p대의 조정 국면에 위치하고 있음
- 외국인 매도가 주가 급락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 : 글로벌 금리 인상에 따르는 신흥 시장 메리트의 감소, 국내 증시 차익 실현 및 환차익 등으로, 외국인 투자자 순매도 지속 (올해 들어 6월 23일까지 3조 5,840억 원)
- 주가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의 공존
 - 상승 요인 : 단기 급락에 따르는 주가 저평가, 기관투자가 매수 기반 확대 가능성 등
 - 하락 요인 : 글로벌 금리 인상 지속, 고유가 및 원자재가 상승에 따르는 기업 실적 악화, 세계 경기 및 국내 경기 하강 등
- 국내 증권사 상승 반전 vs 외국계 증권사 조정 장기화 예상
 - 국내 증권사들은 종합주가지수가 2/4분기에 저점을 형성하고 3/4 분기 이후 상승 국면에 진입하여 연말 1,500선에 이를 것으로 예상
 - 반면 대부분의 외국계 증권사들은 하반기에 글로벌 유동성 축소의 영향으로 국내 증시의 추가 조정 가능성에 무게 중심을 둔 보수적 시각을 견지

< 국내외 투자 기관의 향후 주가 전망 >

	주요 내용
긍정적 시각	▪ 거론되는 대내외 악재가 최근 급락한 주가에 이미 반영, 연말 1,500선
	▪ 하반기 기업 실적 개선으로 향후 주가 상승 예상, 연말 1,500~1,550
	▪ 최근 주가는 아시아에서 태국 다음으로 저평가, 6~12개월 후 1,500선
부정적 시각	▪ 한국 증시는 '유동성 증폭'에 걸려 있어, 추가 하락 불가피
	▪ 국내 기업 실적 악화 우려, 주가가 반등하더라도 극히 제한적
	▪ 글로벌 통화 긴축이 한국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4. 국내 M&A 시장 과열

○ 대규모 시장 규모를 형성하고 있는 국내 M&A 시장이 과열 양상을 나타내고 있어 국내 투자 부진, 기업 부실화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대우 건설 매각 과열 양상 노정 : 대우 건설 매각에 5개 콘소시엄 참여, 6조 6,000억 원에 금호가 인수
 - 주가 기준 현 자산가치의 2배, 당초 예상 가격 5조 원 내외보다 1조원 이상 상회
- 향후 M&A 물량 50~60조 원 규모 : 향후 2007년까지 국내 M&A 시장 규모는 50~6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
 - 현대건설, 쌍용건설, 대한통운, 하이닉스, 대우 조선 해양, LG 카드 등이 주요 대상
- 신규 투자 위축, 기업 부실화 초래 우려 : M&A 과열에 의한 인수 가격 폭등은 기업의 신규 투자 축소와 재무구조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을 높여주어 국내 경기 침체 심화를 유발

< 향후 M&A 대상 주요 기업 내역 >

(단위: 원)

기업	시가총액	자산	매출
현대건설	4조 9,180	5조 1,227	4조 2,851
쌍용건설	3,378	7,949	1조 1,633
대한통운	1조 1,614	1조 3,168	1조 1,717
대우조선해양	4조 9,761	5조 2,553	4조 7,142
하이닉스	13조 429	10조 2,654	5조 7,534
LG카드	5조 2,655	9조 842	2조 7,297

5. 스포슈머(Sportsumer)의 부상¹⁾

○ 연중 내내 대규모 국제 스포츠 행사가 집중되어 있는 올해에 스포슈머에 대한 스포츠 마케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스포슈머의 의미와 중요성 : 스포슈머(Sportsumer)란 스포츠(Sport)와 소비자(Consumer)의 합성어로 스포츠 관전, 직접 참여 등 스포츠 관련 소비 잠재력이 높은 소비 계층을 의미

- 스포슈머의 특징 : ACTIVE

A	Association	· 타인과 교류를 중시함
C	Confidence	· 개성이 뚜렷하고 자신감이 강함
T	Trend	· 새로운 트렌드에 민감함
I	Information	·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 활용함
V	Variety	· 관심사가 다양함
E	Entertainment	· 흥미와 즐거움을 추구함

- 스포슈머(Sportsumer)에 대한 마케팅 전략 : PLAY

P	Pleasant	· 즐거움을 제공하라	· SKT의 꼭짓점 댄스
L	Lady-oriented	· 여성 소비자를 공략하라	· 비타 500 (이효리)
A	Authoritative	· 권위 있는 대상을 이용하라	· 현대카드 (아드보카트)
Y	Young	· 젊음의 이미지를 추구하라	· 제일모직의 SS311 (젊음을 강조)

1) 출처 : 제일기획, 「스포츠슈머즈, 그들의 전력 분석」 2006. 6.

III. 기업 대응 전략

○ 기업은 단기적으로는 하반기 경기 부진을 극복하기 위한 재무, 영업, 조직 전략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한미 FTA 등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르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임


○ (단기 대응 방안) 단기적으로 기업은 경제 연건 악화에 대비하여, 금융 리스크 축소, 자금 운용 신중, 마케팅 강화, 생산성 향상 등에 주력해야 함

- 재무 : 기업내 위험 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 상시 리스크 관리 시스템 구축, 신중한 자금 운용이 요구됨
 - 리스크 관리 시스템 강화 : 대부분 국내 기업들이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위험관리를 부수적인 업무로 간주하는 관행을 타파하고, 위험관리 전담부서의 설치, 전문인력 양성 등 상시 위험관리 체제로 내부 조직을 정비해야 함
 - 신중한 자금 운용 : 부채 상환 구조 및 신규 자금 조달 계획의 재검토, 단기 유동성 자산 보유 비중 확대를 통한 안정적 현금 흐름 유지 등
- 영업 : 우량 고객, 스포슈머 등 특정 소비 계층에 마케팅 역량을 집중하는 디마케팅(demarketing)이 필요
 - 불황기에 의한 기업 실적 악화에 따르는 제한된 마케팅 자원을 타겟 소비 계층에 집중 투입하는 디마케팅(demarketing) 전략이 필요
 - 우량 고객을 제대로 선별하고 고객 입장에서 이들의 욕구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충족시킬 수 있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
 - 특히 스포슈머와 같은 새로운 소비 계층에 대한 성향 및 시장 분석과 맞춤형 마케팅 전략도 필요

- 조직 : 지속적인 업무 혁신과 생산성 향상에 주력해야 함
 - 지속적인 업무 혁신 추구를 통해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해야 함
 - 불필요한 비용 절감 노력, 성과주의 확대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

- (중장기 대응 방향) 또한 중장기적으로 한미 FTA 발효 등 시장 개방 확대에 대응한 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강구
 - 공통 : 美기업들과의 전략적 제휴나 M&A 등을 통해 경쟁력 강화

 - 제조 : R&D 능력 강화와 글로벌 브랜드 개발로 상품의 고부가가치화

 - 금융
 - 新상품 개발 및 위험관리 역량 강화를 통해 수신 경쟁 우위 확보
 - 우수 인력 확충 및 핵심 인재 이탈 방지
 - 미국 등 선진 금융 회사들과의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주원 연구위원 (juwon@hri.co.kr) ☎ 02-3669-4030

HRI 經濟 指標

➡ 主要 經濟 指標 推移와 展望

		주요 경제 지표 추이와 전망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P)	2006(E)
국 민 계 정	경제성장률 (%)	8.5	3.8	7.0	3.1	4.7	4.0	4.5
	최종소비지출 (%)	7.1	4.9	7.6	-0.3	0.4	3.4	4.0
	민간소비 (%)	8.4	4.9	7.9	-1.2	-0.3	3.2	4.0
	총고정자본형성 (%)	12.2	-0.2	6.6	4.0	2.1	2.3	3.1
	건설투자 (%)	-0.7	6.0	5.3	7.9	1.1	0.4	1.5
	설비투자 (%)	33.6	-9.0	7.5	-1.2	3.8	5.1	5.5
대 외 통 계 래 준	경상수지 (억 \$)	122	80	54	119	282	166	50
	무역수지 (억 \$)	118	93	103	150	294	232	80
	수출 (억 \$)	1,723	1,504	1,625	1,938	2,538	2,844	3,120
	증가율 (%)	(19.9)	(-12.7)	(8.0)	(19.3)	(31.0)	(12.0)	(9.7)
	수입 (억 \$)	1,605	1,411	1,521	1,788	2,245	2,612	3,040
	증가율 (%)	(34.0)	(-12.1)	(7.8)	(17.6)	(25.5)	(16.4)	(16.4)
기 타	소비자물가 (평균, %)	2.3	4.1	2.7	3.6	3.6	2.7	3.2
	실업률 (%)	4.1	3.8	3.1	3.4	3.7	3.7	3.5
금 융	원/\$ 환율 (평균, 원)	1,131	1,291	1,253	1,192	1,145	1,024	940
	국고채금리 (평균, %)	8.3	5.7	5.8	4.6	4.1	4.3	4.6